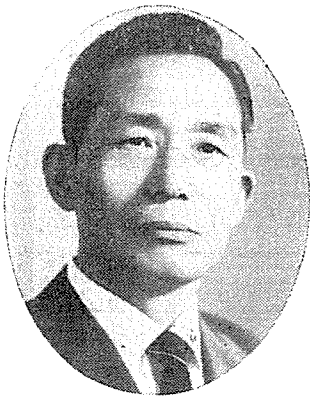


總力安保 持續成長 總和鞏固

80년대 경제의 자립 · 중화학공업국



〈朴正熙 대통령〉

지난 12일 朴正熙대통령은 77년 年頭記者會見
을 갖고 總力安保 持續의인 經濟成長 國民總和
의 公高化란 3大施策을 支柱로 하는 施政方針을
밝혔다.

長長 2時間 20분에 걸친 記者회견에서 朴大
統領은 “先平和” “後統一”의 원칙을 강조하고
“南北韓 不可侵” 促求와 不可侵협정이 체결되면
駐韓美軍의 철수를 反對하지 않을것이라고, 주
목할만한 外交安保의 發言을 했다.

또한 南北對話의 문호개방을 전제 對話의 場所
로 여러 구실을들어 서울서 꺼린다면 板門店이
나 쌍방향의하는 제3의 장소도 무방하다고 말
했다.

朴 대통령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北韓에
정치문제를 떠나 食糧원조를 할 용의가 있다는
刮目할만한 提議를 던 붙였다.

朴 대통령은 회견 전반에 걸쳐 “自立” “自主”
를 強調했으며 自主性을 力說, 文化的 自我회복
과 再發見을 통해 궁지있는 새歷史 創造에 使命
을 다하자고 呼訴했다.

朴 대통령은 시종 차분하고 疏脫하게 때로는
卑近한 例話等 自信感에 넘치는 會見을 갖었다.

새마을 운동을 「새마을 운동」 곧 意識革命 작
업이라고 지적하면서 所得增大와 經濟發展이 바
로 우리의 近代화가 아니라 精神革命이 國民化
했을때 우리의 참된 근대화가 達成 되는것이라
고 強調했다.

自信에 넘치는 具體性을 띤 國政전반에 걸쳐
言及해 主으로서 國民의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고 본다.

다음은 朴 대통령 會見內容에서 第4次 계획
과 과학기술분야에 관해 발췌한 것이다.

200倍로 늘어난 輸出高

지난 15年동안에 걸친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을
實施, 成功的으로 完遂했는데 이것은 世界的으
로 類例없는 模範의인 經濟成長 事例이다.

61年을 基準해 볼때 15年동안 G. N. P는 12倍,
1人當 所得은 8倍로 成長했고, 輸出은 200倍로
4, 000萬弗에서 82億弗로 늘어 났으며 工業은 輕
工業 위주에서 重化學工業으로 구조가 바뀌는
눈부신 발전을 갖어왔다.

우리 經濟의 完全自立 志向

제4차 경제계획 목표의 첫째가 우리 經濟를
完全自立단계까지 끌어 올리자는 것이다.

이 目的 達成을 爲해서 첫째 投資財源을 自力
으로 調達하여야 되겠다는것.

技術主導型 頭腦産業 育成

80년대 산업의 역군·고급두뇌양성

76年度 投資財源率은 76% 였으나 81년에 가서는 完全 100% 調達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國際收支面에서 살펴볼때 73년에 3億弗의赤字, 76년에 2億 7千萬弗의 赤字를 냈으나 81년까지는 黑字를 내도록 하자는데. 그러나 최근國際收支事情이 좋아져서 79년까지는 國際수지 균형이 이루어 질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投資財源을 自力으로 調達하자면 國內貯蓄이 많이 늘어나야 할것이다.

技術開發에 置重, 産業構造의 高度化

목표의 둘째가 産業구조의 高度화와 技術開發에 置重 한다는 것이다.

農水産부문과 1차産業부문이 産業구조면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現在보다 낮추고 鑛工業부문이나 製造業의 比重을 훨씬 높일 것이며 工業部門중에서도 輕工業보다는 重化學工業의 比重을 높여 나갈것이며 특히 力點을 두고자 하는 것은 技術主導型 頭腦産業의 育成이 될것이라는 것. 이에 따른 技術人力을 많이 養成하고 技術開發에 있어 精密科學, 精密機械, 精密電子, 플랜트 用役産業等 고도의 技術과 두뇌를 필요로하는 分野가 될것이라는 것이다.

專門研究所의 設立

많은 技術人力 養成을 위해 政府는 專門研究所를 많이 設立하게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미 設立되어 공사를 추진중인 “표준연구소” “선박해양연구소” “자원 개발연구소” 전자 광학 핵연료 열관리 등 과 그의 많은 연구소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工業原料의 自給體制 이룩

鐵鋼 非鐵金屬 石油化學工業 電子 工業부문에 계속 投資를 擴張, 國際水準까지 끌어 올리고 여기서 나오는 工業原料로 自給體制를 確立해나갈 計劃이라고 한다.

機械工業을 核心産業化

機械工業 育成은 4차 5개년기간중에 核心사업이 될것이다 기계공업은 방위산업 육성에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北韓共產집단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 60년초에 착수했으나 우리가 出發은 늦었다 해도 80年代에 가면 質量的으로 앞서게 된다는 것.

政府는 工業化 과정에서 수반되는 환경오염, 공해등에 대해서도 유념해가며 對策을 강구할 計劃이라고.

安定기반 구축 社會開發에 주력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國民生活의 균형 있는 발전과 향상이기 때문에 社會福祉 정책은 經濟成長과 더불어 必히 解決하여야 할 課題이다.

政府는 우리 實情에 맞추어 成長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저소득층 부터 실시해 나갈것이라는 것.

의료보험제도를 生活무능력자, 보호 대상자 33만명과 저소득층 173만명에게 우선 실시하며 직장단위 지역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擴大해 나간다 기타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 해나갈것이라 한다.